# 우리가 살다 죽어도 그 생명의 근본만은 되남습니다

☞ 21면에서 계속

합쳐서 중용을 한다는 격이 되죠.

그러니까 그대로 앉아서 소의 무명을 벗겨 줘도 아프지도 않고 그냥 금방 죽어요. 그리고 죽으면 껍데기가 없어지는 거죠. 무명이 벗겨지고, 그 영혼은 내가 돼 가지고 바로 환생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즉시에 무명이 벗겨지는 거죠. 어떤 때는 지나가다가 도살장에 가는 소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에 그냥 그렇게 해 줘요. 그러면 소의 머리를 방망이로 쳐도 아픈 걸 느끼지 않아요. 그러고 무명을 벗어요. 돼지든지 닭이든지 모두가 그래요.

그러니까 안을 치느냐, 바깥을 치느냐에 달려 있죠. 소도 바깥으로, 달구지를 치면 절대로 안 갑니다. 소가 가질 않죠. 그러니까 소를 쳐야 달구지를 끌고 가죠. 그와 같이 우리가 지금 안의 소를 쳐야 바로 소가 작용을 하죠. 작용을 하니까 제도가 되죠. 작용을 하니까 일체가 다 제도가 된다는 게 뭐냐 하면, 그것이 그대로 통신이 되면 어느 한 부분에만 통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안을 치면 누진으로 통신이 돼 가지고 사대로 통신이 되는데, 그게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안을 치면 바로 사대, 즉 말하자면 세계로 친다면 세계가 다 통신이 되는 거나 똑같죠. 이 몸뚱이 이 세포 하나하나에까지도 통신이 되니까요.

그렇게 통신이 되면 지금 이것이 어떻고 어떻고 어떤 건가를 전부 다 알게 돼요. 통신을 안 하면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거기 통신이 돼서 다 알고 자꾸자꾸 내 마음이 둘이 아니게 돌아가다 보면 둘이 아니게 부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가 돼서 이것이 '위로는 일체가 둘이 아닌 줄 알고, 아래로는 둘이 아닌 도리로 자꾸 제도해서 자꾸 안을 치면 그 소가 달구지를 끌고 작용을 한다. 그래서 제도가 된다.' 그래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니라. 위로는 부처를 모시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느니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연들을 맺으세요. 악한 인연을 맺지 말고 좋은 인연과 선덕을 쌓아서 바로 선의 씨로서 이 세상을 두루 한다면 내가 고달플 때 모두 같이해 주고 모두 같이 들어 줄 수 있고 이렇습니다.

### 공양의 의미

**질문** 절에서는 부처님이나 스님들께 무엇을 올리는 것도 공양 올린다 하고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공양을 한다고 하는데 그 뜻이 있을까요?

**답변** 여러분이 식사를 한 그릇 먹을 때에 혼자 먹습니까? 아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여러 생명들이 같이 먹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몸속에 내가 얼마나 많이 들어 있습니까? 그러니 내가 밥 한 그릇을 먹어도 공식(共食)하고 있죠? 그런데 그 밥 한 그릇이 또 뭡니까? 농사지은 사람, 밥 지은 사람, 뭐뭐, 전부 거기 손길이 갔으니 모두 한데 합치면 전부 공식이에요. 그러니 공식했다는 것은, 즉 말하자면 공양(供養)입니다, 공양! 그래서 "공양을 올려라." 이렵니다.

어느 한 부처님에게 올리는 게 아니고 '우주 삼라만상 전체에 한 그릇으로 공양을 올리고도 그 한 그릇은 되남더라' 하는 겁니다. 되남아서 또 올리고, 먹어도 또 남고, 또 먹어도 또 남고 이렇게 되풀이되는 끊어지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혼자 먹어도 공양입니다. 그래서 공양! "공양하셨어요?" 이러죠, 절에서? "밥 먹었소?" 이러지 않고.

우리가 밥을 한 그릇 먹어도 그것을 해서 올리는 자는 누구며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해서 올리는 자도 자기요, 받는 자도 자기입니다. 그런데 내면으로 볼 때 내가 먹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서 먹는 것입니다. 몸속에도 수십억 마리의 생명들이 들어 있음으로써 네가 먹었다 내가 먹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양 한 그릇을 내가 먹는다 하더라도 생각을 잘하면 공양이 되고 생각을 잘못하면 그냥 밥 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더불어 함께 공식(共食)한다고 생각한다면 네가 먹었다 내가 먹었다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공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양을 올리면 공덕을 입는다 이런 소립니다. 그러나 공양이 아니고 개별적인 밥이라면 공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덕이라는 것이 내 몸의 조직체, 즉 모든 생명들이 한 그릇을 놓고 다 같이 먹는다는 뜻입니다. 다 같이 먹으니까 다 같이 마음을 내서 모두 서로서로 도와 가면서 서로서로 작용을 하고 작용을 해 주고 사니까 공동체요, 바로 공덕이 되는 거죠. 공덕이 된다는 뜻도 그렇지만 공양을 올린다 하는 것도 그렇고 공향을 피운다 하는 것도 이런 데서 오는 겁니다.

공양을 올리면 삼라만상 대천세계가 전부, 만물만생이 전체가 다 한 그릇을 놓고 내부에나 외부에나 전체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덕이 될 수밖에요. 나를 떠나서 상대로 믿는다면, 상대를 믿는다면 공덕이 될 수가 없지요. 그리고 공양이 될 수가 없구요. 그리고 마음의 향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공향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바깥으로 믿고 바깥으로 끄달린다면 아무리 공양을 많이 올리고 시주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공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덕이 되게끔 공양을 올리고 향을 피우고, 공덕이 되게끔 행을 하고 마음을 내라 이거죠.

> 우리가 좀 더 마음이 뛰어나서
> 넓게 볼 수 있다면 넓게 생각할 수 있고
> 넓게 생각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걸림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조직체로서 운영을 하는 거지 조직체가 아니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도 조직체가 돼 있기 때문에 회사 운영을 하는 겁니다. 굳이 조직체라는 이름이 없이도 말입니다.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상무가 있고, 총무가 있고, 직원이 있고 모두 이렇게 조직이 돼 있기 때문에 질서 정연하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공동체고. 그렇듯이 우리가 공양 한 그릇을 올린다 하더라도 그렇고 내가 먹는다 하더라도 공양입니다. '이거는 내가 먹으니까,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말고 단 한 숟가락을 먹더라도 공양을 올리시라 이겁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것도 공양이요, 둘이 아니게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하고 돌아가는 전체가 바로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든, 한 그릇을 바치든 공양은 공양입니다. 더불어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참다운 공양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 몸속의 생명들과 공식을 한다는 생각으로 음식을 먹느냐, 아니면 이런저런 생각도 없이 앞에 있으니까 그냥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 전에 올리는 공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산해진미를 올린다고 해도 이만큼을 올린다는 생각으로 한다면 아무런 공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한마음으로 한 공덕이 되게 하십시오.

### 자식 문제는 잘 놔지지 않아요

**질문** 안 좋은 습관이 나올 때마다 돌려놓으면서 가다 보니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되놓고 되놓고 하는데도 자식 문제는 제 집착이 너무 강해서인지 잘 놔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또 공부를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게 되는데, 제가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답변** 그건 입력이 안 됐기 때문에 되나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자기한테 자기가 자꾸 따지는 버릇을 갖는다면 습입니다, 그게. 자기한테만 따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도 따지죠, 일일이. 그게 왜냐하면요,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속에 자기가 다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과거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몸속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거기서 솔솔, 그저 이때 한 거는 이때 나오고 저때 한 거는 저때 나오고, 그냥 입력된 대로 순서대로 착착 나옵니다.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착착 나오는데 그 나오는 의식들이 수가 없습니다.

그 의식들이 입력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자꾸 거기서 나오는 대로 나오는 그것만 알지, 그것이 잘되고 잘못되는 거를 모르는 중생들입니다, 이게 업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대로, 그놈도 거기서 나온 거, 그놈도 거기서 나온 거, 그놈도 거기서 나온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옛날에 어느 수좌가 동짓날 팥죽을 큰 솥에다 쑤는데 팥죽이 부글부글 끓어서 팥죽 방울이 수없이 나오거든요. 수없이 나오니까 퍼뜩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아, 우리 몸뚱이 속에 있는 팥죽 방울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니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되겠구나. 방울대로 따로 따로 있는 줄 알고 했는데 아이구, 한 팥죽 솥에서 나오는구나!' 하고요. 이제 아시겠죠? 한 팥죽 솥에서 방울이 나오는 거지 팥죽 솥이 따로 있어서 방울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것도 문수! 요것도…." 자기 법이란 얘기죠. 법신! "요것도 법신! 요것도 법신!" 하고는 주걱으로 때렸단 말입니다. "이것도 문수! 저것도 문수!" 하고 그저 때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스스로 익는다면 벌써 팥죽은 다 익었으니까, 열기가 더 오르지도 않고 더 내리지도 않고 아주 평상시처럼 따뜻하게만 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팥죽 방울이 올라오지 않죠. 모두가 하나가 돼 버렸으니까, 그냥 모두가 팥죽이 돼 버렸으니까 말입니다.

그렇듯이 모든 것을, 거기서 어떠한 뿔따구가 나오든지, 또 자기에게 누가 되게끔 생각이 나오든지, 또 집안 식구들한테 짜증이 나든지, 또 자식이 잘못해서 속이 상하든지, 모든 것을 거기다가 그냥…, '그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 그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 자식의 일이든지 뭐든지 다 거기다가 맡겨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나오는 걸 거기다가 맡겨 놓을 때, 동시에 '흥, 이렇게 나오는 거라면 돌아서 잘 나오게도 할 수 있잖아!' 하는 생각이 아주 필연적으로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안 되는 일도 거기서 나오는 거라면 되게 할 수 있는 일도 거기서 나올 수 있잖아?' 하고 돌려놓는 겁니다.

속에서 이렇게 뿔따구가 날 때 '아니, 불이 일어나게끔 나올 때 불을 가라앉힐 수 있는 것도 바로 거기 아닌가?' 이럴 때는 아주 선선하게 이 마음이 곧바로 화해 가지고는 아주 좋게 나옵니다. 즐겁게 나옵니다. 웃음도 깔깔대고 웃다가 '아이고, 이거 안됐잖어?' 하는 생각을 하면 웃음이 뚝 멎죠? 허허허…. 그렇게만 하신다면 모든 게 아주 더함도 덜함도 없는 잘 익은 팥죽이 돼서 맛있게 맛을 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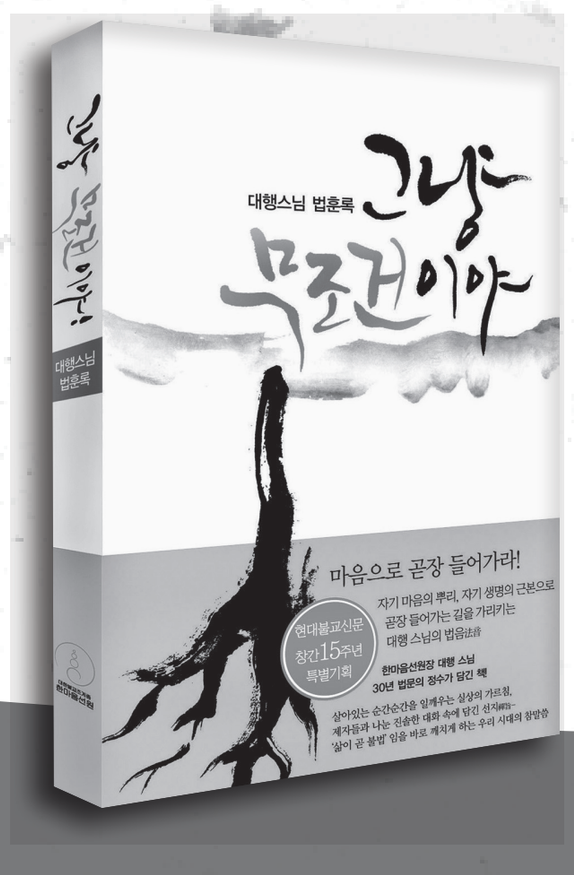
### 엄마가 암 말기라는데…

**질문** 저의 엄마가 병원에서 암 판정을 받았어요. 아주 말기래요. 그래도 저는 주인공에게 맡기고 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주위에서 자꾸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먹고 싶은 거 잘 챙겨드리라 그러니까 매우 화가 나요. 이럴 땐 어떻게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지요.

**답변** 이거 보세요. '한마음 주인공' 하면 모든 이 공장 공장마다, 간장 공장에서나 위 공장, 심장 공장…, 이게 간장이 나빠지면 심장도 나빠지고 위도 나빠지고 대장까지도 이게 좋지 않아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거기다가, 한마음 주인공만이 낫게 할 수 있고 네 몸을 네가 건강하게 해서 끌고 가야지 않겠느냐고 거기다 놨을 때, 모든 일체의 그 파워가 일어나서 굳어 들어가던 그 자체 세포가 하나하나 살아지거든요. 이렇게 죽게 만드는 게 있고 세포를 살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죽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죽게 만드는 것이 같이 포함해서 살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작용을 해 주는 것도 내 몸 안의 중생들이 다, 회사원들이 작업을 해 줘야 회장이 살듯이, 이 사람이 전부 종합해서 보면 내가 회장이라면 그 모습들은 다 직원이란 얘깁니다. 직원들이 움죽거려 줘야 회장이 살죠? 그와 같으니까 그 직원들한테 "너도 내 식구다." 하고 다 맡겨라 이 소립니다. 알아듣기 쉽게 하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저런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암이다 뭐, 위암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름일 뿐이에요. 마음이다 뭐, 주인공이다 하는 것도 이름이니까 진짜로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mahamall.co.kr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마하몰